바른미래당 "구태적 지역주의 극복"

당 출범 후 첫 최고위 전주서 열어

박주선 · 유승민, GM 군산공장 폐쇄 정부대응 촉구

바른미래당은 19일 출범 후 첫 최고위를 전주에서 개최하며 옛 국민의당 창당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고질적·구태적 지역주의 극복'을 거론하며 여당과 제1야당의 대안세력으로서 바른미래당 지지를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참석, 먼저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을 거론하며 민심 잡기를 본격화했다. 박 대표는 특히 "이번 GM 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 당국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의 GM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군산공장 가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아울러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단기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 실직자 재취업,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 대표도 "군산을 고용재난특별지역, 또 전북 군산 일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제가 바른정당 시절 전주와 전북에 여러 차례 왔고 지난 대선 때도 여러 차례 왔다"고 전북 지역에 대해 친근감을 드러낸 뒤 "전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정말 건전한 상식과 특성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배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지를 청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전주의 경제, 먹고사는 문제,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고질적이고 구태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우리도 한마디" 19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십수년간 문제를 키우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과 방치의 소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바른미래당 창당으로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의 패권적 양당정치는 종식될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립적 정치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념적 극단주의 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발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패권·극단' 정치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미래정당과 낡은 구태정당과의 대결, 수권정당과 불임정당과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경제로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은 낡은 구태정치로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진성 기자

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전북도 공동체 8개소 선정

군산 비응도 · 야미도 익산 · 남원내수면 등 8억2000만 해수부서 확정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평가한 2018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비 대상으로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8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8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지원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56개소 중 8개소를 선정, 군산시 2억(비응도, 야미도), 익산시 0.8억(익산내수면), 남원시 0.8억(남원내수면), 김제시 2억(동자개, 서변제내수면), 부안군 2.6억(격포, 메기양식)이 대상이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공동체는 전국 1,100여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2017년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점수 700점 이상인 모범 및 협동공동체, 평가점수 500점 이상인 참여공동체에 대해 8억2000만원을 도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원받은 육성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공동체 소득사업에 쓰여서 공동체 수익창출과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자율관리공동체의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립성 높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 함께 만들어요

시-국제로타리클럽, 시정 비전 공유

전주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시는 19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홍균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와 임원, 3670지구 산하 28개 클럽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2018년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 1지역~전주6지역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시는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글로벌 관광문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로타리클럽과 상호 협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회원의 표창장 수여식과 글로벌 관광 서포터즈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과 헌신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기여해 온 10개 로타리클럽 회장이 전주시정 유공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 지역 28개 클럽 회장들은 이날 '글로벌 관광서포터즈'로 위촉돼 향후 가장 한국적인 세계 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김홍균 국제로타리 3570지구 총재는 "우리 로타리클럽은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두어 들인다'는 슬로건과 함께 '초아의 봉사'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전주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서로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로타리클럽은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을 위해 봉사와 기부로 지역 사회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김홍균 총재와 전주 지역 국제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탄탄한 산업적 기반과 격 높은 문화, 질 좋은 생태 환경, 사람 중심 복지 정책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670(전북)지구는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어려운 세대 가정환경 개선 사업 등 해마다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전주시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참여를 위한 안전 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인 고재우 부장이 강사로 나서 참여자의 연령별, 사업별, 작업 환경별 특성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에는 사업 참여자의 사업 종료 후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의 맞춤형 취업 교육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이 취업 취약 계층의 한시적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머물지 않고 사업 참여자들이 해당 분야 기술 및 전문성을 습득해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머리 맞댄다

전북 남원 · 순창, 경남 합천 · 거창 · 함양 등 영호남 지자체 실무자협의회 오늘 개최

대구~광주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은 경유지 9개 지자체 담당과장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2차 실무자협의회를 2월 20일 대구시청에서 개최한다.

해당지자체는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 전북 순창·남원, 전남 담양,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이다.

지난해 10월에 제1차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금년에는 대구시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3억원(대구 1.5, 광주 1.5)을 확보하여 사업의 경제성논리 및 당위성확보를 위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철도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와 오는 3월에 개최예정인 9개 지자체장 협의회 개최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한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191km를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며, 총사업비 4조8,987억원을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남 서부지역 및 호남 동부지역의 낙후된 교통여건을 개선해, 동서간 인적·물적교류 활성화 및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며, 경부선, 대구산업선, 호남선, 전라선 및 경부고속도로 등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철도 수혜지역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촉매제 역할로 탄탄한 남부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번 제2차 실무자협의회에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내년 국비 확보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경유지 지자체가 다함께 힘을 모아 오는 3월 지자체장 협의회 개최, 하반기 국회포럼 등 앞으로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영호남 9개 지자체가 다시 한곳에 모였다.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주 만나서 힘을 뭉쳐야 한다"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올해에도 제2차 실무자 협의회 개최를 출발점으로 영·호남이 함께 노력해 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 '공간 멘토단' 역량강화

전주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간 멘토단' 4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영란 전주교육지원청 자유 학년제 담당 장학사의 강의 방법 교육과 선배 공간 멘토단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간 멘토단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채규남 기자